

In the Spotlight

IFRS 9에 따른 기업의 기대신용손실

Release Date: 3 April 2020

COVID-19 Pandemic 중 IFRS 9에 따른 기대신용손실 규정 적용

At a glance

COVID-19 Pandemic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영향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정부는 대규모 격리, 사회적 거리 두기, 국경 폐쇄, 필수적이지 않은 서비스 중단, 그리고 영향을 받는 기업과 개인에게 상당한(어떠한 경우에는 제한없는) 재정 지원 약속을 포함하여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의학적인 영향이 맹렬한 속도로 나타나고 진화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 및 신용 환경과 관련된 영향도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COVID-19는 삼일 간행물 In depth : '코로나바이러스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서 설명된 바 대로 모든 산업의 많은 회계 및 재무보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IASB는 2020년 3월, 'IFRS 9와 COVID-19'라는 제목의 짧은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각국의 규제 당국도 금융기관에 추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운전자본 확충 압박과 수취 채권에 대한 신용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이 Spotlight에서는 기업(비금융기관)의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연결실체 간 대여금 등 IFRS 9의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적용되는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Spotlight는 기대신용손실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 외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 여부, 부채의 조건변경이나 운전자본 개선 프로젝트의 영향을 포함하여 다른 IFRS 9 관련 이슈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업은 모든 잠재적인 회계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추가 지침은 위에서 언급한 In depth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1. IASB 지침의 주요 내용

위에서 언급했듯이 2020년 3월 IASB는 COVID-19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IFRS 9의 적용에 관한 짧은 지침을 발행하였습니다. IASB의 지침은 IFRS 9의 일관되고 적절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반영합니다. 이 지침에서는 “현재로서는 COVID-19와 정부 지원 조치의 구체적인 효과를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기대신용손실 추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ASB는 “경제 상황의 변화는 기업이 적용한 거시 경제 시나리오와 가중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비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한 주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은 가능한 모든 과거, 현재 및 미래 예측 가능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IFRS 9는 명확한 기준이나 기계적인 접근방법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기에서는 기업에 대한 상기 언급된 내용에 대한 영향 및 다른 지침에 대한 영향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다.

2.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표시 –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핵심 원칙과 영향

COVID-19에 따라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상황이 계속 변할 것이 확실하지만 사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IFRS 9 도입 시 손실충당금이 크게 증가한 기업은 거의 없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대신용손실이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편의가 없고 확률로 가중된 금액이라는 IFRS 9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발생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평가할 때 유의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기수취채권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이나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존재하는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경우에는 더욱 판단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편의가 없는 추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지도, 비관적이지도 않은 추정을 의미함)
- 현재 상황이 전개되는 속도를 고려할 때 2020년 3월 말 법인 또는 중간보고기간의 보고서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측정에는 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은 과거 사건, 현재 및 미래 경제 상황 예측에 대한 최선의 가용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치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총당금 설정률표의 기대손실율을 조정하거나 기존에 기대신용손실 모델을 사용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추가 조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 말의 조건의 평가와 관련된 모든 새로운 정보에 대해 업데이트된 사실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합니다.
-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 측면에서, 하나의 접근법이 모든 채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 상황이나 사용가능한 데이터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른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일부 채무자는 해당 국가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정부 지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은 기업의 현금흐름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해당 조치가 취해지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해당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공급자에 대한 채권의 상환보다는 임대료나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 또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의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 IFRS 9에서는 항상 다수의 시나리오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경제상황이 좋을 때에는 결과에 중대한 차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복수의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특히 장기 대출채권이나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계약자산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기업이 적용한 거시 경제 시나리오와 해당 시나리오에 적용된 가중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하나 이상의 시나리오를 추가하여 악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할 수 있고, 악화된 경제상황의 시나리오에 대한 가중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추정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낮은 표준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있었다면 이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정치는 보고기간 말에 평가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보다 정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대신용손실 측정시 금융 자산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금융보증이나 기타 신용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는 그룹내 종속회사가 신용보험이나 신용장이 없이는 특정 고객에 대한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업은 금융보증이나 신용보험에 대한 고려가 손실의 규모를 줄일 수 있지만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줄이지 않습니다. 또한 경영진은 보증 또는 보험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기업의 요청시 의무를 이행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는 특히 연결실체 내의 회사 간 제공한 보증과 관련하여 별도재무제표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의 지급기일이 연장되거나 계약상의 지급기일보다 늦게 금액이 수령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손실된 시간 가치에 대한 추가 보상을 지급받거나 유효이자율이 0%가 아닌 경우 기대신용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리스채권, 일부 계약자산 및 대출과 같은 장기 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는 신용위험의 영향(즉, 금액이 전혀 회수되지 않을 위험)에 비해 그 영향이 적을 수 있습니다.
- IAS 1 문단 82에 따라 손익계산서 본문에 IFRS 9에 따른 손상차손을 별도의 개별 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손상차손을 수익에서 차감해서는 안됩니다. 과거에는 기대신용손실에 따른 손상차손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COVID-19가 발생하고 신용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 요구사항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 COVID-19로 인한 측정 불확실성 수준을 고려할 때 관련 사항의 충분한 공시는 기대신용손실 보고의 중요한 구성 요소 일 것입니다(아래 5. 참조).

3.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영향

IFRS 9의 기대신용손실 적용범위에 속하는 금융상품에는 매출채권, 기타수취채권,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대여금과 기타 투자채권 (연결실체 내의 대여금 포함), 계약자산, 리스채권, 금융보증계약 및 대출약정이 포함됩니다.

많은 기업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계정은 매출채권입니다. IFRS 9에서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계산된 간편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많은 기업은 총당금 설정률표를 이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합니다. 또한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 리스채권과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에 대해서도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거시 경제 정보를 포함한 미래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래에 대한 전망은 COVID-19의 확산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악화된 상황을 시나리오에 포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은 대부분 충당금 설정률표 적용시 채권들을 여러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각기 다른 충당금 설정률표를 적용한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고객은 다양한 산업에 분포할 수 있으며 그 중 COVID-19의 영향을 다른 산업보다 많이 받는 산업의 고객의 경우 여타 고객과는 다른 수준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분화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요소에는 지역, 제품 유형, 고객 등급, 담보 및 고객의 성격 (예 : 도매 또는 소매)이 포함됩니다.

세분화를 고려할 때, 기초 채권에 대한 신용위험의 동인과 현재의 Pandemic 상황에 비추어 어떻게 이러한 동인들이 영향을 받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구되는 세분화의 수준은 중요한 판단의 문제이며, 이때 추가적으로 더 세분화가 필요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세분화는 개별 고객 수준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개별평가 손실충당금 대상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고객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설정률표 상의 과거 평균에 비해 더 많은 손실충당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손실충당금이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Pandemic의 영향을 모델링하고자 할 때 기업은 이전의 경기 침체 동안 고객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의 신용손실 경험을 미래 신용손실의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동 및 경제활동 모두에 대한 제약이 이와 유사한 규모로 적용된 경우가 근래에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과거 정보를 현재에 적용가능하도록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충당금 설정률표에서 각 구간에 대해 예상되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일부 고객은 대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평상시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따라서 연체되는 채무자의 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이 신용위험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운영상의 문제 (예 : 직원이 사무실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많은 공급 계약에는 대금의 지급이 연체되는 것에 대해 연체이자를 청구 할 권리가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고객관계 유지를 위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연체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려는 경우 해당 이자는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채무자가 대금을 지불할 가능성과 정부의 정책의 영향도 각 보고기간말 기대신용손실을 측정 할 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는 연결실체 내의 대여금을 포함한 대출채권과 기타자산 –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증가 식별

기업이 간편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 아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적용하는 것이 요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연결실체 내의 대여금과 대출채권 등 손상의 일반적인 접근법을 적용하는 IFRS 9의 모든 채권에 적용됩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불이행 위험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 여부는 손실 가능성이 아닌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일부 정부의 구제 프로그램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현금을 직접 제공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을 완화시키는 정책은 고려하여야 하지만 채권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보고기업에게 직접 대금을 지불하는 정책은 기초 채권에 대한 채무불이행 위험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 증가한 경우 발생하는 손실이 완전히 복구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음을 의미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구제 정책이 정부 보조금으로 회계처리되거나 공시되어야 하는 경우의 추가적인 지침은 “In depth: 코로나바이러스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유예 – IFRS 9 문단 B5.5.17(13)에서 이자지급유예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의 가능성 지표 임을 감안할 때,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지불에 대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지급유예') 경영진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IASB 지침에서는 "특정 종류의 모든 차입금에 대해 지불이 유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모든 금융상품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평가되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인' 지급유예는 기업에 의해 부여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는 특정 사실과 상황에 따라 사례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는 리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지급유예와 가장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더 추가적인 지침은 'Banking Industry Spotlight on EC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적인 신용위험 증가 평가를 갈음하는 낮은 신용위험 면제 규정 – 낮은 신용위험 면제 규정은 일반적으로 외부 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등급을 부여받은 유가증권이나 재무기능을 담당하는 회사에서 조달한 자금을 운영회사로 이전하기 위한 연결실체 내의 대여금 등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신용위험의 증가와 외부 신용등급의 하락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FRS 9에서는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간주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로써 외부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를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기본적인 원칙은 '낮은 신용위험'에 대한 판단은 시장참여자의 관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IFRS 9 문단 B5.5.22]. 따라서 특정 채무자의 외부 신용등급이 여전히 투자등급이라고 할지라도 시장참여자가 더 이상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러한 정보가 시차에 따라 늦게 반영되는 것일 경우 '낮은 신용위험'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경영진은 이전에 채무자가 발행 한 다른 금융상품과 신용등급이 동일하다고 판단되었던 연결실체 내의 대여금에 대해 여전히 낮은 신용위험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중요성 판단 – 중요한 영향이 없는 상황에서 정당화된 이전의 IFRS 9 기대신용손실의 단순화는 현재 환경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5. IAS 34에 따른 중간재무보고 및 기타 공시사항

전세계의 많은 규제 기관이 중간재무보고에 대한 일정과 요구 사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IAS 34에서는 기업이 중간기간 보고서를 발행 할 때, 재무상태 및 성과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기말 이후 유의적인 후속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IAS 34의 해당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의적인 회계추정치 – 기대신용손실 결정에 사용된 중요 추정치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중요한 추정치에 대한 공시는 많은 경우에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시를 단순히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환경과 시장의 역학 관계의 변화로 인해 회계처리의 새로운 측면들이 중요해 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식별된 중요 추정치에 대한 과거의 공시는 더이상 목적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규제기관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의 규모가 중요 추정치가 된 경우, IAS 1의 미래에 대한 기업의 가정에 대한 유용한 공시 규정에 따라, 추정에 대한 민감도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 스토리텔링 – 공시는 형식적인 문구가 아닌 기업의 특유한 사실들을 반영하여야 하며, 추정치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를 내용에 담고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공시는 기업이 노출된 신용위험이나 기타 위험이 COVID-19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COVID-19의 영향이 기대신용손실 추정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불확실성이 있는 범위와 이에 따라 미래의 추정치가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 기술하는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 신용위험 집중 및 관리 관행 - 과거에는 기업이 신용위험이나 관리 관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중요한 신용 익스포저가 있는 경우 투자자들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고객의 규모별 구분이나 산업(예 : 운송업 또는 소매업)별 구분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고 신용위험 관리 관행과 관련하여 신용보험/신용장 사용에 대해 더 설명 할 수 있습니다.

결론

COVID-19는 사실상 현대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은 회계 및 재무보고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IFRS 9 기대신용손실과 관련하여 주요 이슈를 탐색 할 때 이 Spotlight가 귀하와 귀하의 조연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PwC는 IASB의 제·개정 프로젝트를 요약하여 전달하는 'In brief'와 상세한 실무적용이슈를 다루는 'In depth'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최근 제·개정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 자료는 이를 번역한 것으로서 각 사례는 결정 시점 당시 유효한 국제회계기준서를 기초로 작성되어 그 이후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자료는 우리나라 감독기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판단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2020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